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2>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져야

시비와 분별은 번뇌의 뿌리로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선종(禪宗)에서는 허상에 얽매어 일음일미를 내지 말고 화두를 통하여 변함없는 '참마음'을 바로 보라고 가르친다. 그 참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과 하나가 되라고 한다. 참마음과 하나가 되어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텅 빈 마음'이 된다.

바로 그때 그 마음 자체가 빛이 되어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고 팔만사천법문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선가귀감> 32장에서는 이 도리를 이야기한다.

나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한 생각 속에 팔만 일천 번의 생멸이 있다는 것이다. 생멸이란 어떤 인연이 모여 생겨난 법이 그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되는 것을 말하니, 한 생각 속에 팔만 일천 개의 법이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수많은 법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 연기법이다.

연기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법은 다 여러 인연이 어울려서 만들어진다 것이다. 인연이 모이면 법이 만들어지고 인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생이 있고 노사가 있게 된다. 서로 서로의 인연으로 세간의 법이 벌어져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세간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견해는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무명이라는 것은 '텅 빈 마음'을 모르는 데서 생겨난 허깨비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기신론>에서도 "하나의 법계로서 '텅 빈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주와 객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한마음'에 출연한 생각이 일어났으니 이를 무명이라 한다"라고 하니, 본디 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순관에서는 이 무명을 인정하여 차근차근 중생계의 모습을 만들었으나, 그와는 달리 역관은 이 무명의 실체를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무명으로 오염된 중생계를 떠나 텅 빈 마음이 되니,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곧 '무명이 멀하면 행이 멀하고, 행이 멀하면 식이 멀하며 내지 생이 멀하면 노사가 멀한다' 라고 관하는 것이다.

모든 법 알고 보면 텅 빈 성품 범부들 도리 몰라 생사 윤회

모름지기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져야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연기법에 생멸이 없음을 믿는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을 '텅 빈 성품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밝히고 있다'고 했다. 본문의 허회자조(虛懷自照)에서 허회(虛懷)는 '텅 빈 마음'이고, 자조(自照)는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진 것'이니, 그래서 공적영지(空寂靈知)라고 말하기도 한다. '텅 빈 마음'이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마음이고(空寂),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환해진 것'이란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 모든 것을 다 아는 '신령스런 일'이기 때문이다(靈知). 따라서 허회자조(虛懷自照)란 마음에서 모든 번뇌가 없어진 깨달음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연기법에 생멸이 없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될 것이다.

연이 흩어지면 법이 사라진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바로 이것이다. 연기법의 다른 표현이 인연법인 것이다.

연기법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보통은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의 열두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 십이 연기법이 대표적이다.

이 십이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순관(順觀)과 역관(逆觀)이 있다. 순관은 십이연기를 순서대로 관찰하여 인연이 모임으로써 중생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곧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으며,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으니 내지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라고 관하는 것이다.

이 순관에 의하면, 무명으로 말미암아 여 세간의 법이 없어지고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사라진다. 텅 빈 총만으로서 부처님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역관의 견해로 보면 모든 인연이 흩어졌으므로 세간에 실재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다(空觀). 이것이 무생(無生)의 도리이다.

텅 빈 마음으로써 서로서로 인연이 멀하여 세간의 법이 없어지고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이 무생의 이치이다. 이것이 모든 법의 실상이다. 이 세상 모든 법의 실체를 알고 보면 텅 빈 성품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멸해 변화할 것이 없다. 범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법에 집착해 헛바퀴처럼 돌아다니다 소멸하는 번뇌를 일으켜 생사로 윤회를 하게 되니, 성인들은 무생의 이치를 알고 바로 열반에 든다. ■원소 스님(송광사 인월암)

이 순관에 의하면, 무명으로 말미암아 여 세간의 법이 없어지고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사라진다. 텅 빈 총만으로서 부처님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역관의 견해로 보면 모든 인연이 흩어졌으므로 세간에 실재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다(空觀). 이것이 무생(無生)의 도리이다.

텅 빈 마음으로써 서로서로 인연이 멀하여 세간의 법이 없어지고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이 무생의 이치이다. 이것이 모든 법의 실상이다. 이 세상 모든 법의 실체를 알고 보면 텅 빈 성품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생멸해 변화할 것이 없다. 범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법에 집착해 헛바퀴처럼 돌아다니다 소멸하는 번뇌를 일으켜 생사로 윤회를 하게 되니, 성인들은 무생의 이치를 알고 바로 열반에 든다. ■원소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n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각오(覺悟)

원래 '각오(覺悟)'란 말은 '거룩한 지혜를 일으켜 잠을 깨는 것과 같이 환하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로, 수행자들이 부지런히 공부하여 불법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예부터 이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많은 수행자들은 각고의 정진을 아끼지 않았지요. 일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달마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얻기 위해 팔을 자른 2조 해차 선사의 각오를 말해볼까요. 토굴에서 눈

보라가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에 열중했던 달마. 어느 날, 등 뒤에서 묘한 느낌이 와 닿는 순간 입을 열었지요. "그대는 등 뒤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정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따위 나약한 정신으로 어떻게 정법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서 절제된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달마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이후로는 그 유명한 달마의 '안심법문(安心)'이 나오지요. 이처럼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목숨을 건 정진은 끊임없이 계속 돼왔지요. 우리도 부처님의 진리광명을 깨치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겠습니까.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3장 8장 '부처를 낳은 법(依法出生分)'

길을 잘 쫓아가야 한다. 6장에서, "내가 설하는 설법은 뗏목같은 것"이라고 했고, 7장에서는 이어 "나는 아무 것도 설한 것이 없다"고 분명한 다짐을 받았다. 이처럼 <금강경>은 불교의 맨 꼭대기에서, "마침내 불교는 없다!"고 외치고 있다. 그것은 각자의 불성 속에 있거나, 혹은 아무데도 없다. 책이 뗏목이고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 알아야 할 것은 혜능의 표현을 빌리면, '무상지리(無相之理)'이지 '문자장구(文字章句)'가 아니다. 8장은 이 취지를 다시금 부연한다.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라도
- "수보리아, 네 생각에 어떠나. 사람들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로 기부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엄청났겠지."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클 것입니다. 세 존이시여." "어째서겠느냐. 이 공덕은 공덕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바, 그래서 여래께서 매우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為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何以故. 是福德即非福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무상(無相)이란 빠짐도 굴욕도 없다는 뜻이다. 일희일비(一喜一悲), 재물이든 명예든, 잃더라도 그런가 하고, 얻더라도 운이 좋았다고 여겨라. 그것들은 두루 네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하는 것, 불교식으로 연기(緣起)에 속하는 것을 남 준다고 생색낼 일이 아니다. 그때 비로소 '공덕'이란 것이 성립한다! 이 역설을 깊이 새겨야 한다.

여기 공덕의 '성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가지 못할 내린, 그 평가가 개입된 결과로서의 사물의 '특질'을 가리킨다. 가령 "내가 그것을 주었다"거나, "나는 너한테 손해를 입었다"는 의식이나 기억이 그것이다. 이 분별(分別)을 지워야,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공덕이란 것이 성립한다.

육조의 해설을 듣는다.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공차, 들어다 보시하면, 얻는 복이 많겠지. 그러나 진정한 '자기'에는 아무런 이익될 것이 없다. (물론, 손해될 것도 없다. 진정한 이익이란 마하반야바라미에 의거해 수행함으로써 자성(自性)이 여러 유(有)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을 부덕성이라고 한다. 마음에 능소(能所), 즉 너와 나를 가리는 마음이 있으면 부덕성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논득(論得) 사라진 자리가 부덕성이다. 마음에

불교(佛敎), 즉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의 삶과 행동을 따라 할 때, 그것이 부덕성이고, 그것을 믿지 않거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는 부덕성이 아니다."
혜능은 이렇게 마음의 능소(能所)를 경계한다. 마음에 너와 나를 가리면 이런 저런 유(有)에 떨어진다. 유(有)란 내가 누누이 말한 바 있듯이, 객관적 세계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유(有)란 심리적 분별(分別)의 이런 저런 결과를 말한다. 가령 "내가 택시에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다."는 객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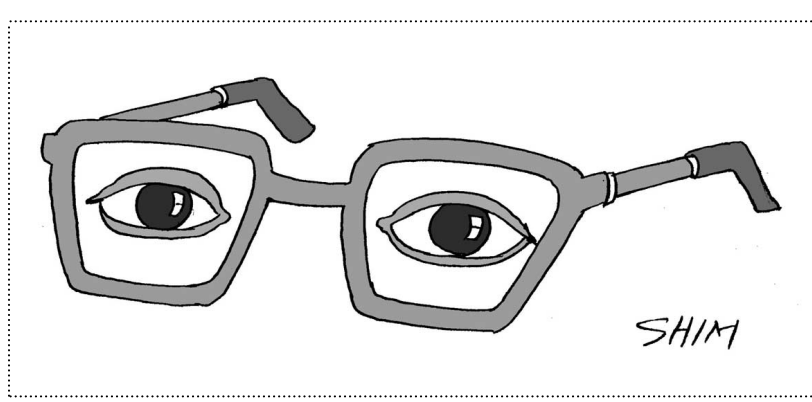
행복동 사람들

재물의 허상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재물은 근심을 만드는 근원이고 근심은 병의 근원이니요.

cafe.buddhania.com/community/happydong

경전은 상품에 붙은 태그



이 소중하고 귀하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갖고 있는 문화나 문명은 축복받았다. 우리가 꼭 그렇다. 20세기 초, 열강이 무력으로 침입해 올 때 불교의 산중 스님들이나 유교의 선비들은 무력하기 이를데 없었다. 영혼이 어떻게 충감을 감당했겠는가. 그러나 21세기 '마음'의 세기에, 우리는 그 시대착오적(?) 유산으로 하여, 삶을 다시 라인업 할 보다 풍부한 자원을 갖게 되었다.

(特)라고 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자리(自利)라면, 남을 위해 풀어 설명해주는 것은 이타(利他)이니, 그 공덕은 광대(廣大), 넓고 커 한량이 없다."

이경으로부터 부처가
- "어째서냐, 수보리아. 일체 제불과 그들의 아늑다라삼막삼보리의 깨달음이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 까닭이다."

何以故. 須菩提, 一切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 皆從此經出.
물론 여기 '경전(經典)'이란 책에 쓰인 문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혜능 또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삶을 이해하고 (方便), 바깥의 유희와 마음의 장애물을 걷어내어(決斷)... 언제 어느 때나 성성한 깨달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지혜'이다.
- "수보리아, 이른바 부처의 진리 혹은 깨달음이란, 실은 진리도 깨달음도 아니다."
須菩提, 所謂佛法者, 即非佛法.
다시금 불교가 중국적 진리가 아니고 방편설화임을 확인했다. 잠깐 나갔다가 다시 거두어들였다. 원효의 어법을 빌리면, 세웠다가 다시 부수었고(立破), 주었다가 다시 빼앗겼(與奪) 셈이다.
육조의 부연설명을 듣는다. "불교의 일체 문자는 이를테면 '태그' 혹은 '손가락' 같은 것이다. 태그와 손가락은 그림자요 메아리란 뜻이다. 태그를 통해 상품의 종류와 가치를 알고, 손가락을 따라 달이 있는 곳을 알지만, 유익할지나, 달은 손가락이 아니고, 태그는 상품이 아닌 것... 경전 또한 진리를 알려지만, 경전이 곧 진리는 아니다. 경전의 글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진리는 혜안(慧眼), 즉 지혜의 눈으로서만 볼 수 있다. 경전만 보고 그 진리를 캐치하지 못한 자는 붓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그는 종내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
六祖: 此說, 一切文字章句如標如指. 標指者是影響之義. 依標取物, 依指觀月. 月不是指, 標不是物. 但依經取法, 經不是法. 經文即肉眼可見, 法即慧眼能見. 若無慧眼者, 但見其經, 不見其法, 即不解佛意. 既不解佛意, 終不成佛道.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nia.com/community/plan_14